연구소 칼럼

자연재해와 농업경영 전략

이원노 *연구위원*
(본 협회 도농녹색교류연구소)

회계세무 강사로 활동하는 후배가 있다. 그의 친가는 삼척에서, 처가는 강릉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7~8년 전부터는 산불 때문에 고생하였고, 작년에는 태풍 매미로 온 동네가 다 쓸려나갔다고 한다. 다행히 그의 친가는 고지대라 피해를 면했지만, 저지대에 살던 그의 이모네 등 동네 전부가 모두 없어지다시피 했다고 한다. 강릉 처가 역시 침수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이들 농가만이 아니라 약 10여년 전부터 봄가뭄, 냉해, 폭설, 폭우, 폭풍, 산불, 폭염,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안보는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나친 산업화로 인한 도로포장 그리고 인위적인 하천개조, 물의 흐름을 무시한 임도개설, 도로절개 등으로 한번 수해가 나면 피해가 그 옛날보다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시설이 클수록,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피해가 크다. 한번 피해를 당하면 그 복구에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기간동안 청춘을 허송해야 한다.

곧 은퇴할 농가가 아니라면, 즉 앞으로 수십 년 더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대규모 경영이 아니라 소규모 경영, 노자의 무위경영, 자연경영을 해야 한다. 즉 농지에 인위적 시설물을 극소화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인위적 시설물이 클수록 시설비, 유지보수 관리비, 이자비용 등 돈 나갈 일만 확대되어 나타나고, 수해라도 한번 당하면 그 순간 채무자가 될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 시설은 극소화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그리고 다방면으로 재활용하는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단, 소규모이되 평당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생산자 마진과 판매자 마진을 동시에 취득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관광소득, 지가상승 소득 등 한 가지 사업 아이템에서 취득 가능한 소득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 즉 시설위주가 규모위주가 아닌 지식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농업, 즉 지식농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지도 잘하기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하다가 더 망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물건 부족 시대와는 다르다. 그때에는 국내시장이 보호되어 있어 경쟁자가 적어 웬만큼만 만들어도 팔렸기에 하품(下品)이라도 한우물만 파면 먹고 살 정도는 되었지만, 지금은 해외의 거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품(下品) 갖고 한우물만 파서는 채무자가 될 우려가 많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우물 또는 단작을 하려면 고도의 품질관리 능력이 있어 고정고객이 충분하고, 흉년에도 자기만은 평년작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문화이던지, 다각화이던지 사업 아이템마다 고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결론은 농사를 짓던, 도시에서 살던, 재무. 생산 경영관리의 고수가 되지 않으면 가장 노릇하기 어려운 참으로 피곤한 시대가 지금의 국제적 개방화 시대라는 생각이다.